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8.(일) 배포즉시 배포 2026. 11. 8.(일)

K-지식재산, 동티모르 산업 발전 이끈다

-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협력 기반 마련 -
- 지식재산청 설립('27년 상반기) 지원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협력 확대 -

한국-동티모르 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26.11.6)을 계기로 지식재산처가 지원해온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27년 상반기 예정)이 가속화된다. 또한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도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11. 6.(금)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장관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라)와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오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현재 동티모르는 농업·제조업 등 비석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재산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식재산 제도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커피와 전통직물 타이스(Tais) 등 동티모르 고유상품의 상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표·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그간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2025년 6월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지식재산청 설립 준비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조직·인력 운영, 지식재산 법제,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및 등록 절차 등 지식재산청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는 포괄적인 지식재산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이 동티모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티모르의 아세안(ASEAN) 가입을 계기로 양국 협력을 한-아세안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시작된 협력 논의가 양국 정상의 관심과 지원 속에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지식재산 제도와 경험이 동티모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서기관	강희만 (042-481-876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한-동티모르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 사진 자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른쪽)과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라 동티모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11.6.(금) 오후 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7번째)과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라 동티모르 통상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11.6.(금) 오후 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